

이슈브리프 902호
(2026. 9.28)

2026년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략적 함의

제902호

박병광 bkpark@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9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이 충돌 확대를 방지하고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의 종식보다는 경쟁의 비용과 위험을 관리하면서 무역·투자,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마약·전구물질 단속, 군사적 위기관리 등에서 제한적인 협력 공간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양국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무역·투자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 AI 대화체계 구축 및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 마련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와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통제, 희토류·핵심광물 등 전략경쟁의 핵심 현안에서는 기존의 입장 차이가 유지됐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경제적 양보와 협력 약속을 확보했지만,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이나 첨단기술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중국 역시 관세 충돌의 재격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과 외교적 공간을 확보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와 전략경쟁 자체를 완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미·중관계는 전면적인 대결보다는 '관리된 경쟁'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충돌 방지를 위해 고위급 소통과 실무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만, 첨단기술, 핵심광물, 군사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경쟁은 양국의 장기적인 전략 경쟁과 직결되어 있어 관계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미·중 관계는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경쟁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경쟁하되, 경쟁이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일방적인 진영 경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보다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관리하고, 반도체·AI·배터리·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ASEAN·인도·EU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경제·기술·외교 분야의 선택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에 미·중 어느 한쪽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기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하고 다층적인 외교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키워드: 미중관계, 시진핑, 트럼프, 정상회담, 관리된 경쟁,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

회담 개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으며, 9월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방미는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워싱턴 국빈 방문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국 방문에 이어 수개월 만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외교부도 불과 “반년 이내에 양국 정상 상호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를 중·미관계의 역사적·이정표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 자체를 종식하기보다는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기술 분야에서 제한적인 협력 공간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정상회담에서는 무역·투자, 핵심광물, AI와 슈퍼 인텔리전스(Super Intelligence), 마약·펜타닐 전구물질, 에너지, 대만, 이란,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양국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무역·투자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만, 반도체·첨단기술 통제, 희토류·핵심광물 등 전략경쟁의 핵심 쟁점에서 근본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미·중관계의 구조적 전환점이라기보다, 양국이 전략적 경쟁의 지속을 전제로 갈등이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안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담 주요 의제와 합의 내용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분야는 무역·경제였다. 양국은 기존에 설치하기로 했던 ‘미·중 무역위원회

(Board of Trade)’와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본격 가동하고, 비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상호 약 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산 농산물·수산물·목재·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최소 1천만 톤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희토류 및 기타 핵심광물의 공급망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AI 분야에서는 ‘미·중 슈퍼 인텔리전스(SI) 대화체’를 설치하고 2026년 11월 후속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AI 관련 사고 발생 시 양국 간 직접 소통을 위한 연락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마약·전구물질 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며, 국제 수로에 대한 일방적 통행료 부과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군사 분야에서는 양국 군 간 위기관리와 충돌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8개 성과 및 공감대(中美達成八點成果共識)’도 이러한 내용을 주요 합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반면 대만 문제와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등 핵심적인 전략 현안에서는 구체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거나 대만정책을 변경했다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첨단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기술경쟁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와 중국의 대응조치가 근본적으로 조정됐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 역시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무역·경제와 일부 글로벌 현안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지만, 대만·첨단기술 등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쟁점에서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및 중국 내 반응과 평가

미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상당한 성과를 거둔 회담으로 평가하고 있다. 백악관은 관세 혜택, 중국의 미국산 석탄 수입 확대, 마약 전구물질 단속, AI 대화체계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인 대결구도로 끌고 가기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이 실용적인 성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의 평가는 보다 복잡적이다. AP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에서는 정상회담의 화려한 의전과 두 정상의 개인적 친밀감에 비해 실질적인 구조적 합의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특히 대만, 첨단기술, 핵심광물 등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후속 협상으로 넘어갔다는 점이 지적됐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를 ‘갈등의 해결’이라기보다 갈등의 연기 또는 관리에 가까운 회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내 반응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서 대규모 국민 의전을 받고 백악관에서 환대를 받은 모습은 중국 내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AP는 중국 대중 사이에서 이번 국빈방문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부상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와 외교당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로 규정한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상호주의를 전제로 관계의 방향을 조정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종합하면 미국에서는 경제적·외교적 실익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핵심 갈등 현안의 해결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병존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중국의 외교적 위상 및 협상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회담에서 미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미국이 얻은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중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경제적 양보와 협력 약속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의 수입을 확대하고, 2027~2028년 각각 1천만 톤 이상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 관세 조정과 투자·무역위원회의 가동을 통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도 확보했다. 마약 전구물질 문제에서도 중국의 단속 강화를 이끌어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성과다. 아울러 AI와 군사 분야에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AI 사고 발생 시 양국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군사적 위기관리와 충돌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미·중 기술·안보 경쟁이 우발적인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

반면 미국이 얻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 미국은 희토류 공급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구조적 갈등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AI 수출통제와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이라는 상호 압박 수단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핵심 안보 현안에서도 양측은 기존의 전략적 입장을 유지했으며, 중국의 대미 전략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기존의 압박정책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 조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실익과 관계 안정이라는 성과를 확보했지만, 장기적인 대중국 전략경쟁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겨두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포기했다기보다 경쟁의 비용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협력 공간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담에서 중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

중국이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미·중관계를 전면적인 대결구도에서 관리 가능한 전략경쟁 구도로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진전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중국 외교부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첫 번째로 제시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압박이나 봉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관계로 규정하도록 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관세 충돌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 기업과 수출업체가 보다 예측 가능한 대외경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동시에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등의 구매를 확대하는 대신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이 일정한 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면서도 핵심광물이라는 전략적 지렛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협상했음을 보여준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민방문 자체가 중국에 상징적 이익을 제공했다. 미국이 중국 정상에게 최고 수준의 국민대우를 제공한 것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이를 중국의 부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도 일정한 부담을 안게 됐다. 중국은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고 마약 전구물질 단속 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 문제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지 못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통제정책이 철회되거나 근본적으로 완화된 것도 아니다.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대만정책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관세 충돌의 재격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과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국의 기술·안보 분야 압박과 전략경쟁 자체를 완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 역시 미·중관계의 안정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확보하는 대신 미국과의 장기적인 전략경쟁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미·중관계 예상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중관계는 ‘전략적 경쟁 속 제한적 협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정상 모두 상대방과의 전면적인 충돌이 자국 경제와 국제적 영향력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무역·투자, AI, 마약 단속, 핵심광물, 군사적 위기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실무협의를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6년 11월 예정된 후속 AI 대화와 양국의 APEC·G20 정상회의 참여는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서로의 APEC 및 G20 개최를 지원하고 상대방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의향을 확인했으며, 이는 최소한 정상외교 차원에서는 미·중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안정화가 미·중 전략경쟁의 종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대만, 반도체·첨단기술, 핵심광물, 군사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경쟁 등은 양국의 국가안보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직접 연결된 핵심 현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대중국 압박 수단을 일정 부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역시 핵심광물과 거대한 시장, 자체 기술력 등을 활용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미·중관계는 ‘협력 또는 대결’이라는 이분법보다는 협력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협력하고 경쟁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경쟁하되, 경쟁이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는 합의 자체보다 후속 협의에서 합의사항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관계 안정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한국에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이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양국이 필요에 따라 타협과 협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갈등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외교·경제정책을 수립하기보다 양국관계의 변동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상을 재개한 것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에도 일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AI와 핵심기술 분야의 경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에도 기술경쟁과 기술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적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도체·AI·배터리·희토류 등 전략산업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급격하게 축소하기보다는 분야별 위험을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대만과 한반도 문제 역시 미·중관계의 변화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황도 논의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인식과 접근법에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으로서는 미·중관계가 안정될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반대로 미·중이 전략적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전략적 공간 확대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중 양국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과 타협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한국 역시 어느 한쪽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관리하고, 일본·ASEAN·인도·EU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층적인 외교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의 과제는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다층적이고 유연한 외교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